<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

조홍윤*

<목 차>

1. 서론
2. 자료 및 서사 개관
3. 등나무의 형상에 투영된 형제 관계의 원형
4. 등나무 형상을 통한 형제 갈등 해결의 실마리
5. 결론

1. 서론

<등나무전설>은 동일한 한 남자를 사랑한 자매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짧은 이야기임에도 그 서사가 그려내는 형상은 놀랍도록 강렬하다. 착하고 여린 자매에게 주어진 모진 운명과도 같은 사랑,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란히 물속으로 뛰어드는 자매의 모습, 자매가 죽어간 자리에 돋아난 등나무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전형적 인물과 비극적 사건, 강렬한 이미지가 주는 울림은 그 서사가 짧고 허무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군더더기가 없다'는 감상을 이끌어낸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나 연구의 질적 양감을 걱정하게 하는 '짧은 서사'와 '적은 각편의 수'에 있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서사의 장단과 각편의 수량이 곧 그 서사의

* 건국대학교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전임연구원

질적 볼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증거물과의 관련성과 현실성을 의식하며 구연됨으로써 서사의 무제한적 확장에 제약을 받는 '전설'의 장르적 특성상 서사의 길이가 짧은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1] 관건은 그 서사적 의미의 질이 될 것인 바, <등나무전설>은 형제 갈등의 원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로서 논의의 대상이 될 충분한 질적 요건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등나무전설> 그 자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전례는 없다. 여러 전설을 묶은 단행본에 수록되어 윤문된 이야기가 소개되거나[2] 여러 식물 소재 설화의 양상을 살피는 가운데 간단히 언급된 바 있고,[3] 외국의 유사 설화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소략한 전례의 전부라 할 수 있다.[4] 아직 <등나무전설>의 기본형이 무언인지에 대한 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5] 개별 서사로서의 상징 의미를 밝힘에 있어서도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간 <등나무전설>의 서사는 유래담내지는 상사담의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6] 그러한 경향이 <등나무전설>이 지닌 형제 갈등담으로서의 풍부

1)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신수판)』, 월인, 2002, 121면.
2) 경주시, 『신라의 전설집』, 경주시문화과, 1980, 165~169면; 최영전, 『한국민속식물』, 아카데미서적, 1997, 100면; 이상희, 『우리 꽃문화 답사기』, 넥서스, 1999, 176면;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2004, 293면; 박영하, 『우리나라 나무 이야기』, 이비컴, 2004, 176면; 이유미,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무 백가지』, 현암사, 2004, 62~63면; 이경준, 『한국의 천연기념물』, 아카데미서적, 2006, 237면.
3) 이진민, 「식물 소재 설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한서희, 「식물 유래담에 투영된 현세주의적 가치관」, 『남도민속연구』 제32집, 남도민속학회, 2016.
4) 강종임, 「설화를 통해 본 중국과 한국의 사유 특성 - 상사목의 형상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30집, 중국소설연구회, 2009.
5) 강종임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본형에서는 '자매가 한 총각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죽음을 결정하지만(강종임, 앞의 논문, 47면), 이진민과 한서희의 연구에서는 '총각의 전사 소식을 듣고' 죽음을 결정하는 서사가 제시되어 있다(이진민, 앞의 논문, 17면; 한서희, 앞의 논문, 242면). 이러한 혼란은 <등나무전설>의 기본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고 논의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 <등나무전설>의 기본형이 무엇이고 변이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형상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라 본다. 표면적으로 등나무의 유래가 제시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은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인 것이다.

그와 같은 판단에 따라 본고에서는 <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문제에 주목하여 그 서사에 내포된 원형적 사유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등나무전설>의 각편을 개관하여 서사의 기본형을 제시하고, 서사의 각 국면에서 유동하고 있는 형제 갈등의 양상과 그에 관련한 상징 의미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등나무전설>의 서사적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간 설화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등나무전설>의 서사문학적 가치를 재고함은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형제 갈등의 문제에 관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일말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2. 자료 및 서사 개관

<등나무전설>의 서사를 살피고 그 의미를 구명하기에 앞서 전체 자료를 개관하고 서사의 기본형과 변이형을 분명히 해두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그간 이 이야기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이 이루어진 바 없기에 미비된 과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서사분석의 과정에 혼란을 피하고 서사에 함의된 원형적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이 필수적이다.

<등나무전설>의 각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A

6) 이진민과 한서희의 연구는 식물유래담의 측면에서(이진민, 앞의 논문; 한서희, 앞의 논문), 강종임의 연구는 상사담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다(강종임, 앞의 논문). 수많은 식물유래담의 하나로 다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로 인해 등나무 전설만의 특질이 간과 되었다. 또 상사담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경우 서사적 맥락이 상사담의 영역을 벗어나 있어 층위가 어긋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유형과 B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유형[7]

1. 옛날에 자매가 살았다.
2. 자매는 각자 연인이 있어 사랑을 나누었다.
3. 전쟁이 나서 마을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4. 자매는 연인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자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
6. 자매가 죽은 물가에 등나무가 자라났다.

B유형[8]

1. 옛날에 자매가 살았다.
2. 자매는 각자 연인이 있어 사랑을 나누었다.
3. 전쟁이 나서 마을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4. 자매는 연인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연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자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
6.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연인이 자매의 죽음을 알고 자신도 물에 빠져 죽었다.
7. 셋이 죽은 물가에 팽나무가 자라나고 그 팽나무를 등나무가 감고 올라가 자라났다.

---

7) A유형의 각편은 다음의 두 편으로 집계된다. 임대순 구연, 조동일·임재해 조사, <등나무가 된 자매>,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47면; 이원익 구연, 조동일·임재해 조사, <등나무가 된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7-1, 77면.

8) B유형의 경우 다음의 7개 단행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시, 『신라의 전설집』, 경주시문화과, 1980, 165~169면; 최영전, 『한국민속식물』, 아카데미서적, 1997, 100면; 이상희, 『우리 꽃문화 답사기』, 넥서스, 1999, 176면;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2004, 293면; 박영하, 『우리나라 나무 이야기』, 이비컴, 2004, 176면; 이유미,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무 백가지』, 현암사, 2004, 62~63면; 이경준, 『한국의 천연기념물』, 아카데미서적, 2006, 237면.

각편의 서사를 살펴보면, A유형에 비하여 B유형의 서사가 좀 더 확장되어 있으며 서사문학적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주목되는 차이는 두 유형의 의미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A유형의 경우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매에게 죽음의 이유로 작용하지만, B유형의 경우에는 '자매가 사랑한 남자의 죽음'이 자매의 죽음을 추동하고 있다. <등나무전설>의 핵심 사건인 '자매의 죽음'에 대해 두 유형은 전혀 다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A와 B 중에서 어떠한 유형을 기본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논의의 맥락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 A유형의 문제의식이 자매가 같은 대상을 사랑하게 된 것, 즉 자매의 욕망이 충돌함으로써 벌어지는 갈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 B유형에서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사랑의 비극성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기본형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많은 설화 연구에서 상대적 완성도가 높은 각편을 기본형으로 설정하는 관례에 따르자면 <등나무전설>의 기본형을 B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 듯 보인다. 그런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되어 구술 원자료의 성격을 갖는 각편들이 A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B유형의 각편들은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윤문자료의 형태로 원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처럼 B유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본형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보다 확장적이고 서사적 완성도가 높은 것을 기본형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기대는 설화의 서사 중에서 완결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오히려 여러 적층의 경로를 밟아 온 가변적인 것이고, 적층의 과정에서도 완고하게 변하지 않았던 부분이 오히려 해당 설화의 근원적이며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9] '원형(原型, archetype)'이 인간 삶의 핵심 문제를 담고 있어 시공을 초월해 끊임없이 같은 서사를 재생산하는 거푸집이라면, 모든 각편에 공통된 서사가 오히려 원형에 가깝다는 생각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간소하면서도 B유형과 모든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9)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제16집, 우리어문학회, 2001, 314~315면.

있는 A유형을 기본형으로 삼는 것이 옳을 수 있다. 물론 구비전승을 통해 적층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설화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보다 완성도 높은 각편을 기본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이와 같이 구술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확장된 부분이 적층의 소산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 윤문자의 작가적 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B유형의 서사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성을 띤다는 점에서 그 원형성을 의심하게 한다. <등나무전설>의 인물, 자매와 그녀들이 사랑한 남성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설정되어 있다. 이에 이야기 속의 남성은 자신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여성이 자매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자매가 상황을 깨닫게 되기까지 모른척 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비윤리적 결연 행위는 자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자매는 사이좋게 연인의 무사귀환만을 바라며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이다. 남성은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관계를 맺고 여성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남성지배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 그처럼 비정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나란히 몸을 던지는 자매의 모습은 강력한 열(烈) 이데올로기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

설화의 서사에 시대적 관념이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민간전승의 특성상 상층문학에 대립되는 반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띠게 될 가능성을 갖는 것이 설화문학의 특성이다. 물론 민간전승의 설화라 하여 언제나 반이데올로기적 경향을 갖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철저한 이데올로기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설화문학이 함유한 '원형'이란 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하며, 그 서사가 특정 문화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간 삶의 모습을 담아낼수록 보다 원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설화유형의 각편 중에서도 보다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적고 원형성이 높은 것을 기본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유형 각편들의 강도 높은 이데올로기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층계급 문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열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서사라 할 수 있는 <이비고사(二妃故事)>의 인물 간 관계 설정과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10]

따라서 구술 원자료의 본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각편들의 공통 서사단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옅은 A유형을 <등나무전설>의 기본형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A유형에 해당하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상의 두 각편을 중심으로 여타의 자료들을 보조적으로 참고해가며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전술한 대로, 이는 <등나무전설>의 원형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길이며 그 서사의 심층적인 함의를 왜곡 없이 구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3. 등나무의 형상에 투영된 형제 관계의 원형

<등나무전설>에서 가장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리에 자라난 등나무의 형상이다. 이리저리 뒤틀려 자라난 등나무의 모습, 그 자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자매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은 <등나무전설>의 증거물로서 서사의 전체적인 의미를 온전히 하나의 이미지로 응결해내고 있다.[11]

---

10) B유형의 자매는 <이비고사>의 아황(娥皇)·여영(女英)과 같이 동일한 한 남성과의 결연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둘 사이의 우애는 여전한 채로 아무런 갈등 없이 합심하여 원정을 나간 남성의 무사귀환만을 기도하는 점, 남성의 사망 소식에 나란히 물에 몸을 던져 죽음을 맞게 되는 점에서, B유형의 <등나무전설> 서사와 <이비고사>는 매우 큰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비고사>는 유교사회의 상층계급 사회에서 향유되며 열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작용하였던 바, 그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B유형 <등나무전설>의 서사 또한 강력한 열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11) 본고의 제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다. <등나무전설>의 의미를 구명하는 방편으로써 등나무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 주로 이루어진 바, 본고의 제목을 「등나무와 <등나무전설>의 형상에 나타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로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등나무전설>의 핵심적인 상징이 바로 '등나무'인 바, 일반적인 등나무의 특성을 통해 <등나무전설>의 의미를 구명하는 것은 서사 외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에 본고의 제목을 「<등나무전설>의 형상에 나타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로 정하였다.

물론 <등나무전설>의 각편 구연자들을 통해 자매가 화한 등나무의 생김새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형상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등나무전설>을 구연하는 과정에서 등나무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매가 죽은 자리에서 등나무가 자라났다'는 결말을 듣는 순간, 청자는 자연스럽게 흔히 목격한 바 있는 등나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은 <등나무전설>의 전체 서사를 응결하는 상징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관념들을 총체적으로 전달하게 된다.[12] 이에 등나무 형상에 대한 상징 분석을 통하여 <등나무전설>이 내포한 형제 갈등의 문제에 대해 그 전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 동원된 연인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둘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자매는 '이래서는 안 될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결과로 한날한시에 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는다.

> "아 이거 저기 나도 그러믄 이 사람을 사랑을 했구나. 나도 이 사람을 사랑을 했다."
> 이래가 인자 형제가 그 저 이래가 될 일이라꼬(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그 인자 못에 빠져 죽어뿌랬어.[13]

> 그리 형제가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그것을 알고 이래가 안 돼겠다고 해가주고, 그래가 머머 못에 빠져 죽었다 그든가?[14]

---

12) M. 엘리아데는 '이미지(image, 形象)'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렇게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식 수단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의 심오한 양상들을 밝혀주는 총체로서 작용함을 역설한 바 있다(M. Eliade,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15면).

13) 임대순 구연, 조동일·임재해 조사, <등나무가 된 자매>,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47면.

14) 이원익 구연, 조동일·임재해 조사, <등나무가 된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7-1, 77면.

자매의 행위에 나타난 논리대로라면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일'은 '이래서는 안 될 일'이며, 그것은 곧 '살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논리가 자매로 하여금 '죽음으로의 동반'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상황은 살아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이며, 그 해결을 위한 길은 죽음뿐이라는 인식이 자매를 나란히 물가에 서도록 내몰았던 것이다.

하나의 연인을 둔 경쟁자로서 자신의 사랑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나란히 죽음을 택한 자매의 행위가 '숭고한 우애'의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서로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인 바, 자매간의 경쟁이 필연적인 상처로 남을 것이 두려워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였노라고, 그 숭고한 형제애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등나무 전설>의 서사이며, 그러한 형제애의 표상이 등나무의 형상이라고 여길 법하다.

그러나 죽어 등나무로 화한 자매의 마음이 진정 형제애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불편한 지점이 있다. 진정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자매간의 우애도 해칠 수 없어서 속편한 죽음을 택한 것이라면, 그 죽음으로 인해 남은 한 사람만은 사랑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러함에도 나란히 손잡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자매의 모습은, 흡사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남은 한 사람이 가질까 두려워 서로가 서로를 물속으로 잡아끄는 모습에 가깝다.

그러한 심증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자매가 화한 등나무의 형상이다. 등나무의 줄기들은 각각이 서로를 감아 밀치며 격렬하게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자라난다. 등나무의 모습 어디에서도 우애 있는 자매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각 줄기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형제들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격렬한 투쟁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어 등나무로 '변신'한 자매가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찍이 오비디우스(Publius Naso Ovidius)는 '한 존재가 자신의 영혼에 알맞은 새로운 형상을 찾아 입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15] 그에 따르면 존재는 고정된 형상을 지니지

15)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은 이리저

않는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의 한 존재가, 자신이 입고 있는 형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형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이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변신'이라는 화소는 필연적으로 변신 주체가 인지한 한계상황과 그것을 뛰어넘어 실현시키고자하는 욕망을 내포한다.

이를 등나무로 변신한 자매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자매는 인간의 형상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고, 그에 따라 인간의 형상을 벗어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상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자매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였으며, 그들이 죽음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욕망은 그들이 변신한 등나무의 형상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자매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이 입은 형상이 등나무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자매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갈라져 나와 서로 얽혀가며 자라난다.[16] 하나의 뿌리를 지닌 여러 줄기들, 그것은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이다. 특히 각각의 줄기가 다른 줄기를 휘감아 누르며 격렬하게 싸우는 듯한 형태로 자라나는 등나무의 모습은 한 부모를 공유함으로써, 한 가정 내의 형제로 자라남으로써 태생적으로 여러 조건들을 공유해야만 하는 형제간의 운명적 갈등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나무 전설>의 자매가 죽음을 통해 등나무의 형상을 입음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또한 '사랑의 성취'에 관한 것이기보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공유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제 갈등'의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 방황하다가 알맞은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깃들입니다. 짐승의 육체에 있다가 인간의 육체에 깃들이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에 있다가 짐승의 육체에 깃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 뿐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비디우스 저,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민음사, 1997, 507면)."

16) 이천용, 「갈등을 치유하는 부산 금정산 등나무 숲」, 『숲과 문화』 제23권 2호, 숲과 문화 연구회, 2016, 27면.

지라르(René Girard)는 관계 대상 간 '차이소멸'이 유발하는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형제 갈등의 문제를 예로 든다. 차이소멸이란 관계 맺는 주체들이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동일한 대상을 욕망하게 됨을 의미한다.[17] 하나의 대상을 동시에 욕망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대안 없는 갈등이 차이소멸에 의한 그것이며, 형제갈등은 그러한 차이소멸의 문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가 된다.[18]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차이가 적은 관계가 형제 관계이다. 형제는 동일한 부모의 애정을 욕망하고,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다. 그들에게는 무수한 공통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생김새나 성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고,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성향과 기질마저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필연적으로 그들의 욕망 대상은 동일한 것이 되기 쉬우며 그로 인한 갈등을 운명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아들러(A. adler)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라는 동일한 욕망 대상으로 인한 형제 갈등이 경쟁심리를 낳고, 그러한 경쟁상황에서 비롯된 열등의식이 유아의 성격형성을 견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9] 그렇다면 한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되는 갈등이 형제 갈등이며, 그것이 또한 한 인간의 전(全)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행위, 카인과 아벨의 비극이 바로 형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은 시초적이고도 운명적인 형제 갈등의 원형적 성격을 의미심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17) 김모세, 『르네 지라르』, 살림, 2008, 138~140면.

18) 여기서 지라르의 차이소멸 관념을 인용한 것은, 동일한 욕망대상에 의한 형제갈등의 문제가 시원적이고 전형적인 것임을 지적한 그의 관점에 동의하며, 그러한 갈등 양상이 <등나무전설>의 자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그가 이야기한 '차이소멸의 공포 - 희생제의'의 구도를 <등나무전설>의 서사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틀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19) Alfred Adler, 라영균 역, 『인간 이해』, 일빛, 2009, 73~74면.

<등나무전설>에 나타난 자매의 상황도 그와 같은 형제 갈등의 구도에 그대로 대응된다. 동일한 애정 대상에 대한 대안 없는 욕망의 문제, 그러한 차이소멸의 문제가 자매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자매는 그녀들이 취하고 있는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상을 취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죽음을 통해 인간의 형상을 벗고 등나무의 형상으로 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가 인식하였던 한계상황, 즉 인간의 형상이 지닌 한계란 무엇인가. <등나무전설>의 어떠한 각편을 통해서도,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을 인식한 후에 그로 인한 자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20] 자매는 그저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판단으로 죽음을 맞을 뿐 연인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나 다툼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인간적 윤리'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자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윤리는 고금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금언을 탄생시켰고, 그만큼 강력한 인간 윤리의 기본으로 강요되어 왔다. 동일하고도 대안 없는 욕망의 대상을 공유하는 자신의 형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매우 보편적인 인간 욕망임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윤리의 경계가 강력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어린 시절 자신의 형제가 없어지길 바랐던 마음, 혹은 없애 버리고 싶은 마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야기와 금언, 훈육 등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된 윤리적 강요에 의해서 그 마음을 무의식의 저편으로 밀어내었을 뿐이다. 형제를 없애고자 하는 욕망은 사회적으로 용인 받기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상기하는 것 자체가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드(id)가 초자아(super ego)의 억압에 의해 자아(ego)를 형성하는 구도와 동일하다.[21]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

20) 이는 A유형과 B유형에 공통된 사항이다.

21)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3, 371~207면.

히게 될 때 자신의 형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주먹다짐을 하기도 하면서 그 분노를 풀어왔다. 형제 갈등에 의한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적절한 수준에서 그 분노를 풀어주지 않은 채로 과도한 억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분노는 무의식의 왜곡을 낳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등나무전설>의 자매는 극단적인 형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강한 윤리의식으로 억누른다. 동일하고도 대안 없는 욕망의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를 제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억누르고 억누르다가, 결과적으로는 왜곡된 방향으로 그 욕망을 표출하게 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다툼 없이 나란히 손을 잡고 죽음으로 향하는 자매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숭고한 우애의 형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감당할 수 없는 형제 제거의 욕망이 왜곡된 방향으로 분출되면서, '같이 죽는' 방식으로 '상대를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 포위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매가 죽음을 위해 뛰어들었던 '물'의 상징 또한 의미심장하다. 융(C. G. Jung)에 따르면 물은 인간 무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원형 상징으로 이해된다.[22] 그렇다면 자매가 뛰어든 수면의 아래, 즉 자매의 무의식 속에서 찾은 그녀들의 내면 형상이 곧 등나무의 형상이었다는 말이 된다. 형제 줄기를 찍어 누르기 위해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등나무 줄기들, 표면적으로는 우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툼도 원망도 않는 그녀들이었지만,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온몸을 던져 상대를 휘감고 죽음 속으로 끌고 내려가고자 욕망하는 자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형상이다.

이처럼 <등나무전설>의 증거물, 자매가 화한 등나무의 형상은 인간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할 '형제 갈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뿌리에서 난 두 줄기, 그렇기에 그 하나의 뿌리를 독점하기 위해 온몸을 뒤틀어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등나무의 모습이, 동일한 부모,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제 갈등 문제

22)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2002, 125면.

에 대하여 그 원형적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등나무 형상을 통한 형제 갈등 해결의 실마리

<등나무전설> 속 자매의 비극이, 그리고 그 증거물인 등나무의 형상이 우리의 형제 갈등 원형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면 우리는 <등나무전설>을 통해 피할 수 없는 형제 갈등의 문제를 재인식하고 그 운명적 비극을 한탄해야만 하는 것일까. <등나무전설>은 그처럼 그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자조하기 위하여 전파되었던 것일까? 전설이 "절대적 가치로 존재하는 초자연적 질서와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인간적 불완전성 사이의 대립을 함축한다"[23]라고 볼 때에 그러한 결론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전설의 증거물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24] 그러나 <등나무전설>의 서사를 통해 형제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가능성이 엿보인다. 형제 갈등의 형상 그 자체인 '등나무'의 존재에서 형제 갈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등나무 줄기는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꼬여 올라감으로써 성장한다. 하나하나의 줄기는 가늘고 힘이 없어 홀로 성장하여 올라갈 수 없다. 여러 줄기가 서로 얽혀 튼튼하고 굵은 다발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등나무 줄기는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성장하고 있는 등나무 줄기를 억지로 하나씩 분리해 놓는다면 각각의 줄기는 위로 뻗지 못하고 힘없이 땅바닥을 기어 다닐 뿐이며, 그렇게 높이 오르지 못해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한 줄기에서는 꽃이 피어나지 않게 된다.[25] 등나무의 이와 같은 존재적 특성에서 우리의 형제 갈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

23) 강등학 외, 앞의 책, 161면.
24) 같은 책, 164면.
25) 이천용, 앞의 논문, 27면.

전술한 바, 아들러(A. adler)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라는 동일한 욕망 대상을 독점하고자 하는 형제의 욕망이 갈등을 낳고,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 경쟁심리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말 그대로 최초의 관계 갈등 상황이 형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필연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미움, 분노,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낳지 않는다. 유아는 형제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그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닌 열등한 면모를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열등성을 인식함으로써 유아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인식하는 면모를 드러내지 않거나 보완하기 위한 행동방식을 취하게 된다.[26] 다시 말해 인간은 형제 갈등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내외적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인식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형제 갈등의 문제를 구명하고자 하는 심리학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그 경험의 소중함을 강변한다. 매우 큰 동질성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며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빈번한 충돌과 싸움, 갈등을 통하여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갈등 그 자체에 대처하여 적정하게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는 적정한 수준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연습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경쟁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욕망의 대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연습하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방법 또한 배운다.[27]

<등나무전설>의 자매가 그러했듯, 운명의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갈등의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형제 관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형제 갈등이 곧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한 뿌리에서 돋아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성장해 가지만 그러한 얽힘으로 인해 굵고 힘 있는 한 다발이 되어 성장해가는 등나무처럼, 우리의 운명으로 내정된 형제 갈등은 곧 우리가 이

26) Alfred Adler, 앞의 책, 73~76면.
27) 하지연 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형제 갈등 상황에서의 개입 행위가 유아의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2권 1호,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8, 27면.

땅에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등나무전설>의 증거물 '등나무'의 형상은 우리의 형제 갈등 문제에 대해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등나무전설>은 가장 적실한 경계와 해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 스스로 등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속편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아름답고 착하며 예쁜 소녀가 아니라, 볼품없이 휘어져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기괴한 모양의 등나무가 바로 우리 모습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무의식의 그림자에서 거대하게 힘을 키운 등나무줄기가 우리를 얽어매어 저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지 모를 일이다. 우리와 우리의 형제가 등나무의 모습으로 얽혀 있음을 인정한다면, 시시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의 상황도 그저 버겁고 불편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갈등을 통해 또 한 번 휘어져 얽히며 더 강한 한 다발을 이루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얽히고 얽히면서 함께 저 높은 하늘에 닿게 되었을 때에 연분홍의 아름다운 꽃잎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이 올라가 꽃을 피울 때까지 자신과 자신의 형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다발이라는 것을 말이다.

<등나무전설>의 전승자들에게는 하나의 속신이 전해지고 있다. 자매가 화한 등나무의 꽃잎을 말려 지니거나, 그 잎을 삶은 물을 마시면 틈이 생긴 관계가 다시 아물게 된다는 것이다.[28] 등나무의 꽃잎을 귀하게 간직하는 마음, 그 잎을 우려낸 물로 자신의 몸을 적시고자 하는 마음, 그야말로 등나무와 같은 자기 존재를 온전히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끝내는 자신이라는 줄기가 이룬 다발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때때로 부딪치는 갈등의 상황에서 틈나고 벌어지곤 하는 형제의 관계를 다시 온전한 한 다발로 엮어내는 힘이 아닐까.

---

28) 최영전, 앞의 책, 100면.

5. 결론

지금까지 <등나무전설>이 함의하고 있는 형제 갈등에 대한 원형적 문제의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운명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형제이기에, 필연적으로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둘러싼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것이 형제의 내면에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다툼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기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도 같다. 그러나 관계가 유지되는 한 끊임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은 그저 절망과 비극을 낳는 가혹한 운명의 소산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삶의 초기에서 노년의 끝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자기반성과 학습,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짐 지워진 형제 갈등의 한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형제 갈등의 전모, 빛과 그림자를 모두 함의하는 형상이 바로 <등나무전설>의 형상임을 본고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등나무의 모습을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형제 갈등에 대한 원형적 해법임을 또한 확인하였다.

우리 운명의 동반자로 맺어진 형제들, 그들이 때때로 우리 고통의 이유가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주는 것은 본디 우리의 형제관계가 형성되면서 예정된 필연이요 운명이 아닐 수 없다. 등나무 줄기처럼 얽혀 격렬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곧 우리 형제관계의 모습임을 <등나무전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등나무전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적 운명을 자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얇고 약한 등나무 줄기들이 서로 자신의 형제를 휘감아 하나의 굵고 힘 있는 다발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 비록 많은 욕망의 대상을 공유하며 갈등하게 되는 형제이지만 수없이 싸우고 화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성장의 힘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등나무전설>은 전형적인 인물과 사건, 그에 걸맞은 강렬한 형상을 통하여 형제 갈등의 문제에 대한 원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 형제이지만, 그러한 갈등이 형제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역설한다. 그렇게 등나무 줄기처럼 서로 얽히고 꼬여가

며 하나의 다발을 이루고 나란히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것이 형제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함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임대순 구연, 조동일·임재해 조사, <등나무가 된 자매>,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47면.
이원익 구연, 조동일·임재해 조사, <등나무가 된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7-1, 77면.

2. 논문 및 단행본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신수판)』, 월인, 2002.
강종임, 「설화를 통해 본 중국과 한국의 사유 특성 - 상사목의 형상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제30집, 중국소설연구회, 2009, 39~56면.
경주시, 『신라의 전설집』, 경주시문화과, 1980.
김모세, 『르네 지라르』, 살림, 2008.
박영하, 『우리나라 나무 이야기』, 이비컴, 2004.
오비디우스 저,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민음사, 1997.
이경준, 『한국의 천연기념물』, 아카데미서적, 2006.
이기대, 「<구렁덩덩신선비>의 심리적 고찰」, 『우리어문연구』 제16집, 우리어문학회, 2001, 311~341면.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2004.
이상희, 『우리 꽃문화 답사기』, 넥서스, 1999.
이유미,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무 백가지』, 현암사, 2004.
이진민, 「식물 소재 설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천용, 「갈등을 치유하는 부산 금정산 등나무 숲」, 『숲과 문화』 제23권 2호, 숲과 문화 연구회, 2016, 26~29면.
최영전, 『한국민속식물』, 아카데미서적, 1997.
하지연 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형제 갈등 상황에서의 개입 행위가 유아의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2권 1호,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8, 23~40면.
한서희, 「식물 유래담에 투영된 현세주의적 가치관」, 『남도민속연구』 제32집,

남도민속학회, 2016, 237~258면.
Alfred Adler, 라영균 역, 『인간 이해』, 일빛, 2009.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 2002.
M. Eliade, 이재실 역, 『이지지와 상징』, 까치, 1998.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3.

국문초록

<등나무전설>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원형 연구

조홍윤

<등나무전설>에 대한 연구는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된 각편의 수가 적다는 점, 서사의 길이가 다소 짧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던 상황이라 본다. 선행 연구를 통해 언급된 경우에도 식물 유래담의 한 유형으로서 소략하게 다루어지거나, 비교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사목 전설'로 오인되어 잘못된 접근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등나무전설>이 '등나무의 유래'를 이야기함은 분명하지만, 여러 식물 유래담을 통해 그 전반적 성격을 논하는 연구를 통해서는 <등나무전설>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구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등나무전설>을 이루는 주요 화소 중 하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임은 분명하지만, <등나무전설>의 증거물로 제시된 등나무의 형상을 고려할 때에 '상사담' 보다는 '형제 갈등담'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는 등나무 형상이 내포한 형제 갈등의 의미를 구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등나무전설>에서 같은 남성을 사랑한 자매가 죽음을 통해 화한 등나무의 형상은 하나의 뿌리를 둔 형제 줄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 그 자체이다. 따라서 등나무의 형상은 운명적으로 같은 대상을 욕망하고 그에 따라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되는 '형제 갈등'의 전형적 형상이다. <등나무전설>은 우리가 운명처럼 마주하게 되는 형제 갈등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적절하게 분출되고 제어되지 못한 형제 갈등의 비극적 귀결을 적나라하게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등나무전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비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형제 갈등의 전형을 보여주는 바로 그 등나무 형상을 통해 형제 갈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적 깨달음 또한 제공하

고 있다. 얇고 약한 등나무 줄기들이 서로 자신의 형제를 휘감아 하나의 굵고 힘 있는 다발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 비록 많은 욕망의 대상을 공유하며 갈등하게 되는 형제이지만 수없이 싸우고 화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성장의 힘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등나무전설>은 전형적인 인물과 사건, 그에 걸맞은 강렬한 형상을 통하여 형제 갈등의 문제에 대한 원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 형제이지만, 그러한 갈등이 형제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역설한다. 그렇게 등나무 줄기처럼 서로 얽히고 꼬여가며 하나의 다발을 이루고 나란히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것이 형제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함이다.

주제어 : 등나무전설, 등나무, 형제 갈등, 자매 갈등, 형제, 자매

Abstract

A Study of the Archetype of Conflict between Brothers Projected in <the Legend of Wisteria>

Cho, Hong-yoon

Studies on <the Legend of Wisteria> have not been active. It is thought to be because the small number of volumes that were studied, the short length of the narration, which were hard to attract attention from researchers. In cases when the legend was handled through previous studies, it was treated as a type of a tale with the origin of plants and even in cases it was studied in depth, it was mistaken for 'a legend of a lovesick tree' and wrong approaches were made. It is clear that <the Legend of Wisteria> has the 'origin of wisteria' but a study that discusses the overall nature through tales of the origin of various plants, it is hard to clarify the intrinsic meaning of <the Legend of Wisteria>. It is clear that one of the major motifs of <the Legend of Wisteria> is 'hopeless love' but considering the form of wisteria that was presented as a proof of <the Legend of Wisteria>, it is more appropriate to see the legend as a story of 'conflict between brothers' than 'lovesicknes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clarify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flict between brothers that is implied in the form of wisteria. In <the Legend of Wisteria>, the form of wisteria that took shape through the death of sisters who loved the same man is like the stalks from the same root fiercely fight with each other. So the form of wisteria is the typical form of 'brotherly

conflict', having the fateful desire for the same object and experiencing the consequential intense conflict. <The Legend of Wisteria> shows the typical brotherly conflict that we face as destiny and explicitly presents the tragic conclusion of brotherly conflicts that are not released and controlled. <The Legend of Wisteria> does not just tragically present the destiny given to us. Through the form of wisteria that shows the typical brotherly conflict, it also shows the realiza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of brotherly conflict. As thin and weak wisteria stalks wrap around their brothers, form a thick and strong bundle, crawl up toward the sky with unified power, though brothers who share many objects of desire and conflict, they realize they provide power of growth to one another amidst numerous fights and reconciliations.

Like this, <The Legend of Wisteria> shows the prototypical awareness about the issue of brotherly conflict through the typical characters, events, and intense forms that suit them. It emphasizes the fact that brothers cannot help conflicts but such conflicts are for their growth. So it makes us realize once again that brothers are like stalks of wisteria that tangle and twist to form a bundle, extend toward the sky together.

Key words : the Legend of Wisteria, wisteria, brotherly conflict, sisterly conflict, brother, sister

논문 받은 날 : 2016년 10월 31일
심 사 기 간 : 2016년 10월 31일~12월 7일
싣기로 한 날 : 2016년 12월 7일